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정숙

2007년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성봉

현정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현정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국문초록>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현 정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¹⁾는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로, 영향력 및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넷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74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92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검사도구이다.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측정도구는 Heinberg와 동료들(1995)이 개발하고, Smolak, Levine과 Thompson(2001)이 중학생 대상자에 맞게 수정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하고, 조영미가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1)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둘째, 외모비교는 Thompson et. al.(1999)이 개발한 신체비교척도(The Body Comparison Scale)를 조영미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신체를 또래의 신체와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체상도구는 Cash(1990)의 신체자아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적 신체상을 평가하는 척도(Multidimensional Body -Self Relations Questionnaires; MBSRQ)로 자기보고식 측정 도구이며 조선명(1999)이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Inventory)로 황찬구(1988)가 번안하여 재구성한 도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AMOS 6.0과 SPSS 12.0K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화된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된 상태에서 외모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인식과 불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체상에 대한 정립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외모비교가 신체상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화된 외모를 가치기준으로 내면화된 상태에서 또래들과의 외모비교는 상향비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자신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특히 외모에 해당되는 키, 몸무게, 몸매는 시각적이어서 비교와 평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와 신체상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하고 있다.

넷째, 성별을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외모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기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여학생들이 높아 자신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신체상이나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를 주로 연구하는데 그치고 있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힌 결과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5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5
2. 외모비교	8
3. 신체상의 개념과 발달	9
4.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발달	14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19
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	22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4
1. 연구대상	24
2. 연구도구	24
3. 자료처리 방법	28
IV. 연구결과 및 해석	30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30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 검증	32
3. 수정된 모형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의 매개효과 검증	37
4. 수정된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40

V. 요약, 결론 및 제언.....	43
1. 요약.....	43
2. 결론.....	46
3. 제언.....	48
 참고문헌.....	 49
Abstract.....	55
부 록	58



표 목 차

<표Ⅲ-1 > 연구대상	24
<표Ⅲ-2 >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26
<표Ⅲ-3 > 외모비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26
<표Ⅲ-4 > 신체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27
<표Ⅲ-5 >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28
<표Ⅳ-1 > 변수간의 상관관계	30
<표Ⅳ-2 > 수정된 모형에 대한 추정치	35
<표Ⅳ-3 > 수정된 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37
<표Ⅳ-4 > 자아존중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간접효과	38
<표Ⅳ-5 > 자아존중감 변수들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	38
<표Ⅳ-6 > 성별에 따른 모형의 추정치	41

그림 목차

[그림 II-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 의 인과모형	23
[그림 IV-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 의 인과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32
[그림 IV-2]	수정된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34
[그림 IV-3]	수정된 모형에서 남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	40
[그림 IV-4]	수정된 모형에서 여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특성들이 아동의 형태에서 성인의 형태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제2의 신체발육 급등기에 따른 신체발달 및 성적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에 청소년들은 적응이 요구될 뿐 아니라 새로운 신체상을 형성해야 하고, 앞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등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청소년들은 이런 변화에 따른 적절한 발달과제를 성취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의 기준이 특정 연예인이 되면서, 외모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통념화 속에서 왜곡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안에서 형성된 이상화된 외모가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내면화되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가 외모로 인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인식하게 되고,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화된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형성되어 자신의 신체상(body image)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개인에 따라, 남녀간에 따라, 신체변화의 차이가 크고, 일시적으로 신체의 균형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아개념의 불확실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또래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외모관리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된다.

신체상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실제보다 과장하여 자신의 신체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왜곡하여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성, 1997; 정승교, 1998; 현상명, 2005).

엄현신(2007)의 연구에서는 18세 이상 여성 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25세~29세의 여성의 경우 61.5%가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9.9%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배진주(200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성형수술 요구도가 여학생의 41%, 남학생의 20.2%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외모를 중시하고,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외모나 신체상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각하는 성향이 자아존중감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조지숙, 1992),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매력, 자신의 몸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크다고 하였다(양계민·정진경 1993). Schilder(1950)에 의하면 신체상은 정서적인 긴장을 유발하거나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하여 자아상실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였다(임숙자의 3인, 2000. 재인용).

Rosenberg(1985)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이수정, 2004. 재인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안정적이며 애정이 많고, 민감하고도 조용하며 정신이 또렷하고 목표가 뚜렷하며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최혜림, 1999).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외모,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신체만족도, 체중조절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신체만족도, 외모관심, 외모평가 등의 신체상에 대한 다차원적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김선희, 2003; 김재숙·이미숙, 2001). 또한 청소년들이 마른 몸매를 이상화함으로 인해 섭식장애, 낮은 자존감, 우울 등과 같은 정신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김경혜 외4인, 2004), 자신의 외모를 또래들과 비교하여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났을 때 따돌림이나 놀림이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과 내면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체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키, 몸무게, 몸매에 해당되는 외모비교를 통해 지각되는 결과와 이러한 변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로, 영향력 및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직접·간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신체상의 개념과 신체상의 형성 및 발달,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과 형성, 그리고 발달을 알아본 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신체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인감정을 결정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에 대한 이상형을 수용하고,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외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사회비교이론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외모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중매체의 영향

외모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대인감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매력적이고 만족스러운 외모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특히 오늘날 외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Berscheid와 Walster(1974)에 의하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 특성인 재미있고, 강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양계민, 1993. 재인용).

또한 신체 모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이 대중매체에서 보여 주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이상을 청소년들이 지각하면서 비현실적, 매력적 이미지를 내재화하게 된다. 즉 대중매체에 의해 표현된 신체 모습은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

체관리, 메이크업 등으로 포장되며 사진은 원근과 기계적 조작 등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특수한 입장을 갖고 대상을 구성하며 이미지를 가공하는 것이다.

조선명 (1999)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신체모습은 성공을 양산화된 이미지로 결합시켜 신체의 사회적 이상을 강화하고 있고, Heinberg(1995) 등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미에 대한 통념에 의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장희순, 2004.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나오는 모델들을 이상적인 외모로 내면화하게 된다.

대중매체가 신체상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고찰한 선행 연구들(김재숙 등, 2001; 문정신, 2003; 조근영, 1997; 조선명, 1999)을 보면,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관심이 많을수록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더, 불만족하고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고정관념 내재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은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TV는 이미지를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이가영, 1997).

이와 같이 대중매체가 가공된 이미지의 날씬하고 매력적인 신체상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신체상을 내면화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비교이론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으로,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이론은 Festinger(1954)에 의해 제기된 이론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항상 궁금하듯이, 사람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비교에 근거하여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타인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고, 자신과 비슷한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와 인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별되며, 내면화는 외모에 대한 이상형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식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영미, 2005). 신체적 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체적 매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비교를 통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집중되며, 신체적 매력에 대한 자기 인지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관적으로 결합시켜 신체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감정과 평가로 자신의 신체를 중요시하고, 의식하는 인지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조선명, 1999).

특히 Richins(1995)는 사회비교를 미디어 이미지와의 비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이미지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 소유, 미적 수준 등 여러 범주에서 비교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조근영, 1997. 재인용). 따라서 사회비교이론은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나 또래들의 외모비교를 하게 되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송경자·김재숙, 1999).

앞에서 살펴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요약해 보면,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비현실적, 매력적인 이미지를 내재화하면서 이상화된 이미지를 수용하고,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신체상을 평가하게 될 때에 이상화된 이미지와 자신의 신체상을 비교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사회비교이론이 적합한 이론으로 보고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사회비교를 통해 매체에서 보여주는 외모에 대한 이상형을 수용하고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조작적 정의는 Heinberg와 동료들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이상선과 오경자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과 내면화 점수를 말한다.

2. 외모비교

외모에 대한 인식은 자기 자신의 평가와 타인의 평가, 사회적 반응과정이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Lapsley, et, al.(1986)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타인의 평가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서경현 · 이재구, 2003. 재인용).

또한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외모와 행동이 집단의 정상적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 시기는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또래는 생활 현장을 공유하며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성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의 관심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또래집단은 준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허혜경 · 김혜수, 2003).

Stic과 Whitenton(2002)에 의하면 또래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또 하나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압력적인 요소에 포함된다고 했으며(조영미, 2005. 재인용), 동조 행동에 대한 또래의 압력은 청소년기, 그 중에서도 12~13세에 절정에 달한다(허혜경 · 김혜수, 2003). 이러한 요인은 청소년기의 인지적이고 내면적인 성장과 함께 대인관계를 의식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지지와 안정감을 얻게 되고, 집단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Loevinger(1976)의 대인관계 이해의 모델에서도 자신이 집단 내의 타인을 모방하고자 하며 그들의 인정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의 규칙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고 하였고(정옥분 외2인, 1999. 재인용), Sullivan의 대인관계이론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려는 욕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유기체로서 자신의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정옥분, 2005. 재인용).

Cooley(1902)의 자아이론은 자기 주위의 인물들과의 관계에 의해 자신을 반영하게 되는 것으로, 면경자아(looking glass self)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강소영, 2003.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들은 동조성이 강하고, 자신의 신체특성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외모는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이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기준과 외모를 비교하게 되고 있어서 외모비교도 사회비교이론에 의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특성과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또래들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또래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래들을 모방하게 되고, 자신의 외모를 또래들이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비교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외모비교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신체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또래들이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화된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조작적 정의는 조영미(2005)가 번안한 신체비교척도에서 키, 몸무게, 몸매와 관련된 외모비교 측정도구에서 얻은 점수를 말한다.

3. 신체상의 개념과 발달

1) 신체상(body image)의 개념

신체상이라고 하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문제로 개인의 주체성, 자신감 및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생각, 태도, 느낌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신체상은 Schilder(1935)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마음 속에 형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모습으로 신체를 자기 자신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정의하였다(조선명, 1999. 재인용). 신체상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과 태도로,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보는 견해를 밝힌 사람들로는 McCloskey(1976), Secord와 Jourard(1953), Stuart(1983) 등이다. Secord와 Jourard(1953)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이나 태도 및 자신의 각 신체부분과 기능에 대해 느끼는

만족여부로 신체상을 보았다(강소영, 2003. 재인용). McCloskey(1976)에 의하면 신체상은 자신의 신념, 가치, 목표, 성격,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견해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인간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결정해준다고 하였다(김해숙, 2006. 재인용).

Stuart(1983)도 신체상을 자기 신체에 대해 갖는 의식적·무의식적 태도의 총합으로, 개인이 자신의 신체구조, 기능, 외모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와 느낌에 대한 개인내적인 경험으로 보았고(이계원, 1994. 재인용), 인간의 심리상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며, 환경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정추자, 1985).

신체상을 계속 변화하는 개념과 다차원적 개념으로 본 사람들(Bery & Tompson; Schilder; 1935; Cash, 1990; 조선명, 1999; 조영미, 2005) 중, Cash(1990)는 신체상을 자아에 대한 느낌을 중시하는 고도의 주관적 경험이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현상명, 2005. 재인용). 신체상의 개념구조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태도적인 부분은 감정적, 인지·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고, 신체상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며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조선명, 1999).

조영미(2005)는 신체상을 개인마다 독특하며 일생을 통해 발달하는 지각적, 정서적, 인지·행동적 특성을 포함하며 자아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요소이자 자아개념의 평가적 구성 요소로, 자신의 전반적인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생각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신체상은 다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각적으로 형성되고, 신체 각 부위에 대해 평가하며 인지적으로는 신체 경험에 대한 신념, 신체관심과 자아진술까지 포함된 것으로 외모에 대한 지각과 태도, 신체의 크기, 인체의 공간적 위치, 신체 경계, 신체 역량, 신체의 성별 등과 관련된 모든 측면이 포함되고 있다.

반면 Shontz(1969)는 Schilder의 적응주의적 정의가 너무 불명확하다고 비판하고, 공간 속의 대상으로 신체도식(body schemata)이란 용어에 대해 신체지각의 인지적 특성만을 언급할 때로 제한하였으며,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의 역동적 성격 요소를 지닐 때에만 신체이미지란 용어를 사용하라고 하였다(조선명, 1999. 재인용). Veld(1985)도 Schilder의 의견에 반대하여 인

간은 하나의 완전한 신체상을 형성할 수 없고, 신체에 대한 개념을 수많은 신체상의 개념적 혼합체로 보았으며,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심적 묘사인 외적 신체상(extraneous body imag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였다(양승공, 2003. 재인용).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신체상이란 타인들과 구별되는 다차원적인 이미지들로,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신체상은 고도로 개인화된 주관적 경험으로 성장·발달하면서 변화되고 지각적, 정서적, 행동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며 자아개념의 중심적 구조로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태도, 느낌,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조작적 정의는 Cash(1990)의 신체 자아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적 신체상을 평가하는 외모평가, 신체만족도, 외모지향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신체상의 형성 및 발달

신체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으로, Piaget(1950)의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신체는 성장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단순한 단계에서 점차 복잡한 단계로 발달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5. 재인용).

Stunkard와 Mendelson(1961)도 신체상은 영아기와 유소년기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신체적 성장이 빠른 청소년기 동안에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수정, 2004. 재인용). 또한 Piaget의 인지 발달단계에 따라 신체상 형성 단계를 살펴보면, 유아는 자신의 신체가 어떤 외적 자극물에 반응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고(정옥분, 2005. 재인용), 2세 이후의 아동은 자기 몸은 하나의 독립체로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3세경이면 동생이나 또래를 통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인식하게 된다(김경희, 1989). 초기 어린이의 경우 그의 신체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는 신체상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Fujita(1972)는 아동이 또래와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식하고 건강, 외모, 가족 구성원에 대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고 하였다(현상명, 2005. 재인용).

학령전기인 3세에서 6세인 어린이는 남녀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성에 대해 호기심과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가 생긴다(김윤희 외4, 1985). Riffie(1988)에 의하면 학령기는 성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동료와의 상호작용법을 익히며, 동료 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제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기 시작한다고 하였다(안재현, 1996. 재인용).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옮겨가는 전환기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사춘기의 급속한 신체변화는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신체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 청소년기의 신체상 형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10대 청소년들의 신체상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신체변화가 정상적인지 남들과 비교하게 된다.

Brown(1977)은 신체상의 발달이 성숙, 사회문화적 영향, 가족관계, 주위 사람들의 인식, 동료들의 태도, 국소적 사회 경험, 행동적 신체 경험 및 신체 내부적 경험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고 기술하였다(이재창·임용자, 1994. 재인용). Elder(1968)에 의하면 신체상은 부모, 친구, 대중매체에 의해서 전달된 이상적인 영상을 갖게 되는데 신체 영상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고 한다(송인섭, 1998 .재인용). 8세 정도 이상의 소년은 아주 정확히 자아 지각을 하는데 신체 영상에 대해 지각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송인섭, 1998). 또한 Hargreaves와 Tiggemann(2003)에 의하면 신체 부분에 대한 만족은 그 개인이 속한 문화가치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사회적인 피드백이 신체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장희순, 2004. 재인용).

Rogers(1985)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신체적 자아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는 시기이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의식의 중심이 되는데 변화하는 신체 비율, 새로운 감각은 때로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나 적절감을 손상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이수정, 2004. 재인용).

신체상 형성과 발달을 요약해 본다면, 신체상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기능을 인식하면서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학령전기가 되면 어린이들은 남녀의 차이점을 알게 된다. 또한 학령기에는 성적 역할을 구체적으

로 확인하면서 아동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법을 인지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의 신체상은 신체 내·외적인 경험, 사회적인 피드백과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발달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의식의 중심이 되고 있다.

3)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개인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1) 생물학적 요인

신체발달 측면으로 사춘기의 신체 성장과 성적 성숙이다. 사춘기의 변화는 신체·생리적 변화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에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이 시기는 신체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발달에 개인차와 남녀차가 커서 변화된 신체에 대해 새로운 신체상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다.

여중생의 신체상에 관한 연구에서, 여중생들은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지각하고, 실제 신체 뿐 아니라 자신의 지각하는 신체에 따라 신체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박종성, 1997; 정승교, 1998).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고 있으며, 사춘기의 신체 성숙의 시기가 사회심리발달에 영향을 주는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인 경우, 조숙아들이 만숙아보다 신체 변화에 만족하고, 여자 청소년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재 외, 1991).

(2) 사회문화적 요인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후광효과이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사회문화적인 기준으로 결정된다. Katz와 Braly(1993)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범주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한규석, 2006. 재인용).

Reis(1982)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남성들이 덜 매력적인 남성보다 여성들과의 인간관계를 더 많이 맺으며, 매력은 친밀감과 만족감을 얻는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였고, 사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신체적인 편견에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였다(권기덕, 1994. 재인용). Martink(1981)의

연구에서도 선생님이 못생긴 아동들보다 매력적인 아동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권기덕, 1994. 재인용). 이렇게 고정관념이 촉발되면 객관적인 정보들마저도 고정관념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각색되어 처리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개인적인 측면

질병 및 외상으로 인한 신체손상은 신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Stuart(1983)는 신체기관의 상실 및 기능의 상실은 열등한 신체상 및 열등한 자기개념으로 확대된다고 하였고(이계원, 1994. 재인용), 안재현(1996)의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신체상의 변화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볼 때, 신체 발달적 측면에서의 성장과 발달은 청소년기에 새로운 신체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고정관념과 후광효과는 외모에 영향을 주게 되어 편견과 차별을 하게 된다. 개인적 측면에서 질병과 외상은 신체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래 및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신체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4.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발달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용어들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아에 대해 표현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복잡한 현상 때문으로 여겨진다.

자아존중감과 혼동되어 상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자신감(self-confidence), 자아존경(self-respect), 자아만족(self-satisfaction), 자아평가(self-evaluation), 자아개념(self-concept), 자기수용(self-accept)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도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self-esteem)

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방향이 설정된, 평가적이고 양적 특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측면인 반면에, 자아개념(self-concept)은 인지적 활동에 의한, 대상에 대한 이해라는 질적 특성(Damn & Hart, 1992)을 지니는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의 의미상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김희화, 1998. 재인용).

Andrews(1967)는 자아개념을 자아존중감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성격에 대한 동일시까지 포함하고 있고,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하였다(안재현, 1996. 재인용).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학자들의 주관에 따라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가 있으며 성공적이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가치 판단으로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라고 말하였다(이계원, 1994. 재인용). 황찬구(1988)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일반적인 자아상을 나타내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자기의 가정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교에서의 인정과 지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학교적 자아존중감 등 4개 하위요인이 모두를 포함한 총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내고 있다.

Wells와 Marwell(1976)은 자아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적, 판단적, 감정적 요소라고 자아존중감을 정의하고 있어서,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적인 태도로 자아존중감을 정의하였다(김희화, 1998. 재인용).

반면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 즉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감정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송경자·김재숙, 1999. 재인용). 또한 전미향(1998)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각 개인의 내면에 지니게 되는 강력한 힘으로 보았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평가와 감정 중 어느 한 요소에 비중을 두거나 두 요소에 비중을 두어 정의되고 있어서, 자신의 주위환경 속에서 지각한 여러 속성에 대한 평가적, 감정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현상명, 2005).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태도에 관련되는 것으로 개인의 내면에 지니게 되는 힘과 신념, 느낌과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조작적 정의는 황찬구(1988)가 변안한 자아존중감 검사에서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

Harter(1983)는 James와 Cooley의 말을 인용하여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근원을 설명하였는데, 아동의 지각된 능력(perceived competence)과 지각된 수용(perceived acceptance)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이영자, 2003. 재인용).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싹트고, 작은 성취나 또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되며(정옥분, 2005), 특히 중요한 인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평가에 의해서 형성된다(류재영, 1991).

또한 전통적 상징적 상호작용주의(Cooley, 1920; Mead, 1925)의 관점으로는, 사회비교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아동 자신의 판단과 평가가 자아존중감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김문혜, 1999. 재인용).

Piaget(1954)의 인지발달에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 4단계가 있으며, 질적으로 다른 이 단계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정옥분, 2005. 재인용). 따라서 유아가 외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시기가 감각운동기이며,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별되는 대상으로 보는 견해에 도달해야 하고, 다른 대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송인섭, 1998).

Marsh(1990)는 학동기의 아동은 학업, 신체, 사회성의 세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어지는데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또래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로 나뉘며 신체적 자아존중감은 외모와 신체적 능력으로 세분화 된다고 하였다(김희화, 1998. 재인용).

Case(1991)는 아동의 인지발달에서의 진보는 자아존중감의 구조 변화와 함께 사회 비교과정에서 자기평가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아동 중기 이후는 또래와의 비교평가가 자아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비교능력과 비교욕구가 자아

존중감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문혜, 1999. 재인용).

또한 개인의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자아 영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의 정도가 전반적 자아수준을 결정한다(김희화, 1998). Pelham과 Swann(1989)은 전반적 자아수준의 결정 요소로서 특정자아의 영향이 그 영역의 중요도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김희화, 1998. 재인용), 신체자아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체상 불만족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지각하는 능력과 수용을 통해 형성되고,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세분화되어지고 점차 추상적으로 변화한다.

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또래와의 관계, 신체상, 학교생활 및 학업 등(이춘재·곽금주, 1994)을 들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Harter(1983)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부모, 또래와 같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의 질이나 특성이 관련된다고 하였다(김문혜, 1999. 재인용).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자유롭고 솔직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부모로부터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다(김희화, 1998). Walker와 Greene(1986)에 의하면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은 물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들은 부모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그들의 부모들도 청소년 자녀들과 동일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고 하였다(장휘숙, 1999. 재인용).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부모이며, 부모가 수용적이고 따뜻하며 이해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2) 신체상

이미령(1997)은 여고생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 연구에서 외모스트레스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고, 김희화(1998)도 신체외모 자아의 감소집단에서 외모가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과 신체상은 중요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Mahoney & Finch, 1976; Secord & Jourard, 1954; Stuart, 1983).

Secord와 Jourard(1954)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은 그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하다고 하였다(서정희외 2인, 2004. 재인용). Stuart(1983)도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고 하였고(이계원, 1994. 재인용), Mahoney와 Finch(1976)도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하였다(홍금희, 2006. 재인용).

따라서 신체자아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제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신체적 부분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은 커지게 된다(송인섭, 1990). 이렇게 신체상은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신체자아에 대한 만족감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래 관계

Brown, Clasen과 Eicher(1986)는 또래의 의견과 또래집단의 규준에 대한 동조성이 높은 청소년기에 또래의 수용은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으나, 거부나 소외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김희화, 1998. 재인용). Buhrmester(1990)도 청소년의 교우관계 친밀도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김희화, 1998. 재인용), 이상로와 이관용(1981)은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또래집단이며, 반 친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김희화, 1998).

또한 또래집단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은 자신의 자아를 지지해 줄 중요한 타인을 찾지 못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변보기·강석기, 1991). 이처럼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중요한 사회화의 역할을 하면서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4) 학교생활 및 학업성적

하루의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일차적으로 사회화 대리인(socialization agents)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장휘숙, 1999),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의 만족은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김희화(1998)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학교생활은 자아존중감의 모든 영역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개인 내적자아, 신체 능력자아, 신체 외모자아가 자아존중감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업성적은 단일영역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경연, 1985; 김수천, 1973). 이처럼 학교생활과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와 신체상과의 관계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어떤 이미지를 강요하거나 비교하게 만들고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날씬하고 키가 크며, 마른 몸매의 이미지를 이상적인 외모의 전형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사회 비교과정을 거쳐 그 기준을 내면화하게 되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그 결과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모에 대해 인지·행동적 성향이 높아진다(조선명, 1999).

또한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자기평가의 척도로 사용할 때에는 사회규범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대중매체는 신체적 매력의 고정관념을 사람들에게 사회화시키고, 무의식적으로 대중매체의 모델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외모평가를 낮아지게 한다고 하였다(임숙자 외3 역, 2000).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며 동년배와 동일하지 못할 때 갈등하게 되고, 자신을 낙오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Schonfeld(1966)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자의식이 강화되는 이유로 이 시기에 급진적인 신체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자신의 신체 특성이 또래집단에 의해 승인되는지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진효정, 2002. 재인용).

Rogers(1985)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신체적 자아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는 시기이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변화가 의식의 중심이 되는데, 변화하는 신체비율, 새로운 감각은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나 적절감을 손상시키기도 한다고 하였다(배진희, 1999). 그리고 Heinberg와 Thompson(1992)의 미국 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평가 비교대상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할 때 선택하는 비교대상이 친구>동년배=학생=연예인>미국인=가족순으로 위계를 나타내었다(장희순, 2004. 재인용).

또한 대중매체와 신체상 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다른 몸매를 강조하는 매스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욱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숙 등, 2001).

조근영(1997)은 신체적 매력이 뛰어난 광고 모델이 사회비교 동기가 큰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사회 비교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력적인 모델에 노출된 집단이 평범한 모델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사회 비교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화된 광고 이미지가 소비자로서 하여금 자신과 광고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비교하게 하는 자극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신체자아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졌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신체상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의 도구가 되며 자아와 타인에게 자극을 주기도 한다(임숙자 외3, 2000). 신체적 외모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제공하게 되어 사람들의 성, 인종, 사회적인 지위, 직업 등을 외모로부터 알게 된다. 특히 신체적인 외모의 요소들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인감정을 결정하게 한다(강소영, 2003).

이상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의 급진적인 신체변화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또래와 외모를 비교하거나 사회문화적 기준으로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비교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을 이상화된 이미지와 비교하게 되므로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고,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하게 된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Festinger(1954)는 사회적 비교과정론 속에서 자신에 대한 지식의 원천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며 그 정확성이 타인과의 교류맥락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이다(송경자·김재숙, 2005).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비교는 자신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준거집단의 인정이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또래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Lennon과 Rudd(1994)는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외모는 시각적이고 사회적 비교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어서 사회비교이론이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외모관리 행동을 설명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재숙·이미숙, 2001. 재인용).

또한 이상적인 신체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시대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체상은 절대적 미의 기준으로 판단되기 보다는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좌우되며, 사회문화적 환경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신체적 만족도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전경숙, 1998).

매력적인 신체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가와 보상, 이상적인 신체조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압박은 개인에게는 자신의 체격조건을 현실적인 기준에 적합하게 변화시키려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송금주, 조정환, 2002). 또한 신체자아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주 발달과제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신체적 부분과 자아에 대한 부정적 느낌들은 더욱 커지게 된다(정은순, 2001).

Clifford(1971)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만족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여자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신체외모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데 그런 시도가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현상명, 2005. 재인용). Jovanovic과 Kenealy(1991)의 연구에서도 올바른 신체상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열등감을 갖게 될 뿐더러, 자아정체감의 확립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혜원, 2003. 재인용)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을 보면, Eklund 등(1996), Maruyamad와 Miller(1975), Russel(2002), Tiggemann(2001)등으로 Maruyamad와 Miller(1975)의 연구는 남성, 여성 모두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매

력과 상관계(조지숙, 1995. 재인용)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Eklund 등 (1996)은 체형에 대한 불만족과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밝히고 있으며(서경현·이재구, 2003. 재인용), Russel(2002)과 Tiggemann(2001)은 신체에 대한 불만족에는 성격, 환경의 상호작용, BMI, 식이제한, 사회비교 등의 변인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서경현·이재구, 2003.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반응과 자신과 비슷한 타인과의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동료나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외모는 특정한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래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화된 이미지와 비교하게 된다.

또한 신체상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조건에 변화시키려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날씬하고, 마른 신체조건을 미디어를 통해 이상적인 이미지로 강요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 비교하거나, 사회문화적인 이상적 이미지와 비교함에 따라 자신의 신체상과 차이를 크게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상에 대해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교 요인은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

Festinger(1954)에 의해 제기된 사회비교이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타인에 관한 정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데, 비교 대상은 자신과 비슷한 능력이나 의견을 가진 대상을 선택한다. 본 모형은 이 이론에 근거하여 김문혜(1999), 조선명(1999), 홍금희(2006), 최진아·이숙(1996)의 연구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모형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태도는 외모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지이며,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외모에 대한 이상적 사회기준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것이 내면화이다. 이것은 매체에서 보여주는 비교기준과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외모비교,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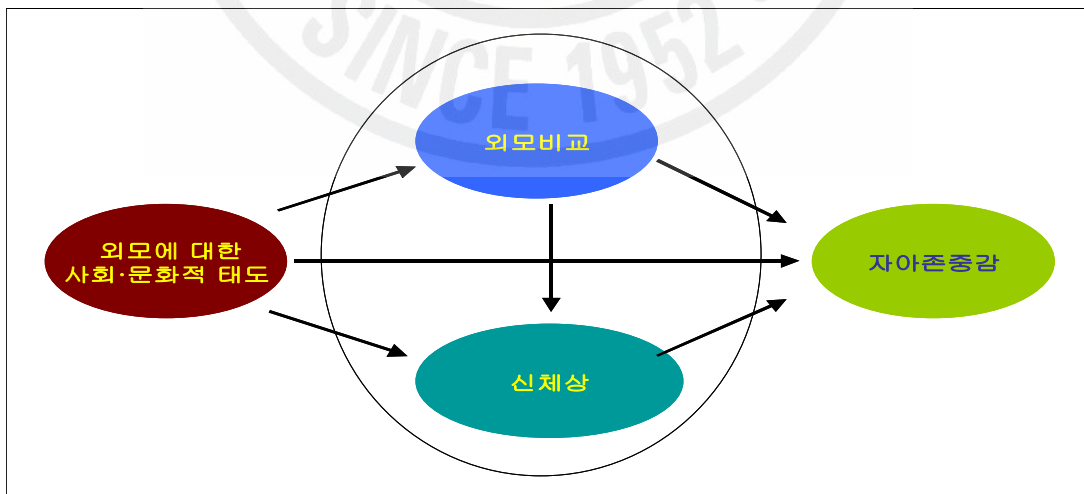
외모비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와 키, 몸무게, 신체매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비교 대상과의 평가에 의해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신체상을 보면 신체상의 하위요인인 외모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이며, 외모지향성은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심, 중요성을 의미하고,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이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적 만족도와 신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지각과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으로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모형에서 변인들 간에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그림Ⅱ-1] 과 같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Ⅱ-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남녀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며,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974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대답을 한 50명을 제외한 924명을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성별, 학교별 자료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

구분	변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468	50.65
	여학생	456	49.35
	합계	924	100.00
학교급별	초등학교	323	34.96
	중학교	365	39.50
	고등학교	236	25.54
	합계	924	100.00

2. 연구도구

측정도구로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둘째, 외모비교, 셋째, 신체상, 넷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검사 도구들이다. 이 도구들은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문항들로 모두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측정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0.77-0.89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측정도구는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하고, 조영미(2005)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Heinberg와 동료들(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 문항들(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로 1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Smolak, Levine과 Thompson(2001)이 남녀 중학생 대상에 맞게 수정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으며 내면화정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모델과 외모비교를 하는 2개의 문항(*나는 잡지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몸을 비교해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흔히 여성잡지에 나오는 내 외모를 비교한다.)이 제외된 12문항이 사용되었다. 여자의 경우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기준을 “날씬함”에 초점을 맞추었고, 남자의 경우 “건장함”에 초점을 맞춘 설문 문항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첫째, 인식(awareness)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의미하며, 둘째, 내면화(internalization)는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외모에 대한 이상적 사회기준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뢰계수는 <표Ⅲ- 2>와 같다.

<표Ⅲ-2>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측정변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전체 신뢰도 계수
외모에 대한	내면화	1, 2, 3, 4, 6, 12*	0.85	0.89
사회문화적 태도	인식	5, 7, 8, 9, 10, 11, *12	0.80	

주. 12*: 남학생은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인식,

*12: 여학생은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내면화

2) 외모비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모비교 측정도구는 신체비교척도(The Body Comparison Scale)를 Thompson et al.(1999)이 개발하고 조영미(2005)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자신의 신체를 또래와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남녀 모두 신체 부분(신장, 몸무게, 몸매)을 묻는 3문항으로 전혀 1점에서, 항상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를 또래와 자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비교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표Ⅲ-3>와 같다.

<표Ⅲ-3>외모비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측정변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외모비교	외모비교	1, 2, 3	0.77

3) 신체상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상 측정도구는 신체상을 자기-주관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Cash(1990)의 신체자아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적 신체상을 평가하는 척도(Multidimensional Body -Self Relation Questionnaires: MBSRQ)로 신체 및 자아만족도 차원의 외모와 관련된 하위 척도들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조선명(1999)이 사용한 도구를 재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조선명, 1999; 강소영, 2003; 홍금희, 2005)에서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로, 외모평가(Appearance Evaluation),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 외모지향성(Appearance Orientation)인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외모평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신체에 대한 매력적이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총 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뜻하는 것으로, 신체적으로 조화롭거나 조화롭지 않은 느낌을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몸매가 균형이 잡혀서 신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모지향성은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심, 중요성을 의미하며 개인이 얼마나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많이 외모에 열중하고 관심을 갖는가,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외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몸치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Ⅲ-4>와 같다.

<표Ⅲ-4>신체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측정변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전체 신뢰도 계수
신체상	외모평가	2, 4, 8, 11, 15	0.75	0.85
	외모지향성	1, 3, 5, 6, 7, 9, *10, 12, *13, 14, 16,*17	0.62	
	신체만족도	1-9	0.87	

주. 신체상(외모지향성) 구성개념에서 *:역문항

4)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Self-Esteem Inventory)를 황찬구(1988)가 변안하여 재구성한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이다.

이 도구는 5단계 척도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영역으로 일반적 자아존중감(general self-esteem), 사회적 자아존중감(social self-esteem), 가정적 자아존중감(home-parent self-esteem), 학교적 자아존중감(school-academic self-esteem), 등 4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하위영역을 합하면 총 자아존중감 점수가 된다.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아주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자아상을 나타내며, 사회적인 자아존중감은 친구나 타인관계에 관한 것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정생활에 관한 것으로, 자기의 가정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불화나 갈등 없이 가족들과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 관한 것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자부심, 학교에서의 인정과 지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표Ⅲ-5>와 같다.

<표Ⅲ-5>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구성개념	측정변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전체 신뢰도 계수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25,*26	0.84	0.88
	사회적 자아존중감	27,28,29,*30,31,*32,*33,*34	0.72	
	가정적 자아존중감	35,*36,37,*38,*39,*40,41,*42	0.72	
	학교적 자아존중감	*43,44,45,46,*47,*48,*49,*50	0.57	

주. 자아존중감 구성개념에서 * :역문항

3.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를 통계 처리하기 위하여 AMOS 6.0과 SPSS 12.0K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내용은 남녀별 따로 분석하였는데 몇몇 척도가 성별에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변수들로 모형검증을 위한 측정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고,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가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body image)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			자아존중감				
		내면화	인식	외모비교	외모평가	외모지향성	신체만족도	일반적 자아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인식		0.411***									
외모비교	외모비교		0.347***	0.270***								
신체상	외모평가		0.063	0.035	0.052							
	외모지향성		0.459***	0.273***	0.322***	0.272***						
	신체만족도		-0.108***	-0.042	-0.128***	0.564***	0.049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		-0.188***	-0.235***	-0.208***	0.311***	-0.152***	0.344***				
	사회적 자아존중감		0.098**	0.019	0.011	0.361***	0.161***	0.322***	0.465***			
	가정적 자아존중감		-0.093**	-0.095**	-0.129***	0.179***	-0.119***	0.175***	0.506***	0.305***		
	학교적 자아존중감		-0.077**	-0.069*	-0.094**	0.199***	-0.103**	0.216***	0.568***	0.426***	0.436***	

*p<.05, **p<.01, ***p<.001

<표IV-1>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는 외모비교($r=0.347$, $p<.001$)와 신체상 변수인 외모지향성($r=0.459$, $p<.001$)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체만족도($r=-0.108$, $p<.001$)와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상선·오경자(2004), 조선명(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인식 또한 외모비교($r=0.270$, $p<.001$)와 외모지향성($r=0.273$, $p<.001$)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홍금희(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외모비교는 신체상의 외모지향성과($r=0.322$, $p<.001$)는 정적인 상관관계이고, 신체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r=-0.128$, $p<.001$)를 나타내고 있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는 신체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의 변수인 내면화는 이상적인 신체상을 가치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자신의 신체상을 이상화된 신체상과 비교하게 되면 이상적인 기준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되어 자신의 신체만족도에 대해 불만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와 신체상의 외모지향성($r=0.459$, $p<.0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외모지향성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외모관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신체만족도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김재숙·이미숙(2001)의 연구결과에서 밝힌 마른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받아들이고, TV 관여도가 높을수록 현실적·이상적 신체이미지와 불일치가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와 인식은 일반적인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는 사회적 자아존중감($r=0.098$, $p<.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외모비교와 자아존중감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일반적 자아존중감 $r=-0.208$, $p<0.001$, 가정적 자아존중감 $r=-0.129$, $p<0.001$,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r=-0.094$, $p<0.01$)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회적 자아존중감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신체상 변수인 외모평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일반적 자아존중감 $r=0.311$, 사회적 자아존중감 $r=0.361$, 가정적 자아존중감 $r=0.179$, 학교적 자아존중감 $r=0.199$)를 나타내고 있다.

외모지향성과 사회적 자아존중감과도 정적 상관관계($r=0.161$, $p<.001$)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가설 1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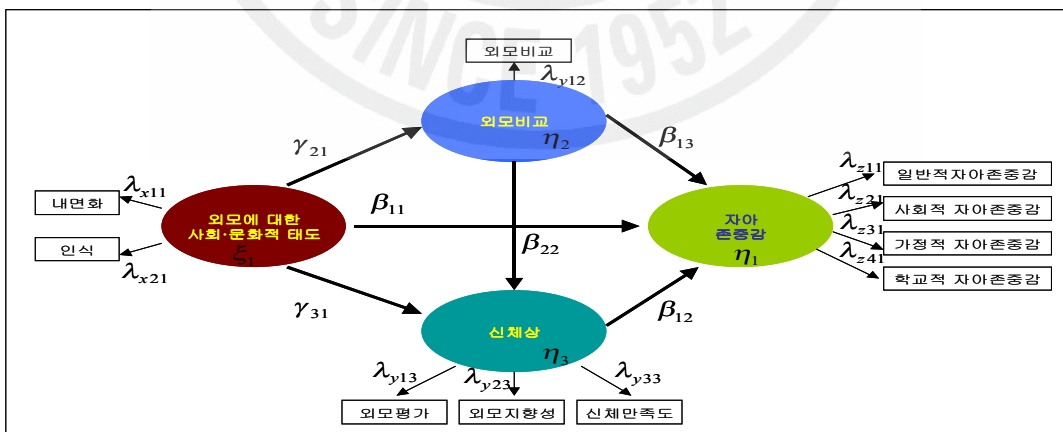
특히 신체상 변수인 외모지향성과 사회적 자아존중감과의 정적 상관관계는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대인관계가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가 조화롭다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어서 구미희(1999), 양계민(1993), 이미령(1996), 현상명(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 검증

연구가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직·간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 모형의 적합도 검증



$\chi^2=530.59(p<.00, df=30)$ GFI=0.89, AGFI=0.89, RMR=1.25

[IV-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 집단에 대한 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자가 설정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유의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과모형에 대한 추정 검증한 결과는 충분한 적합도를 나타내지 않아서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χ^2 의 값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지는데 χ^2 의 값이 적합도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과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검증한 결과 $\chi^2=530.59(p<.00, df=30)$ 로, 충분한 적합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적합도 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0.89,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0.89, RMR(Root Mean-Square Residual)=1.25로 나타나 이들 값 역시 적합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의 평가를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직접경로(β_{11})를 고정시키고, 신체상 측정변수인 외모평가를 제거한 결과 [그림 IV-2]와 같은 수정된 모형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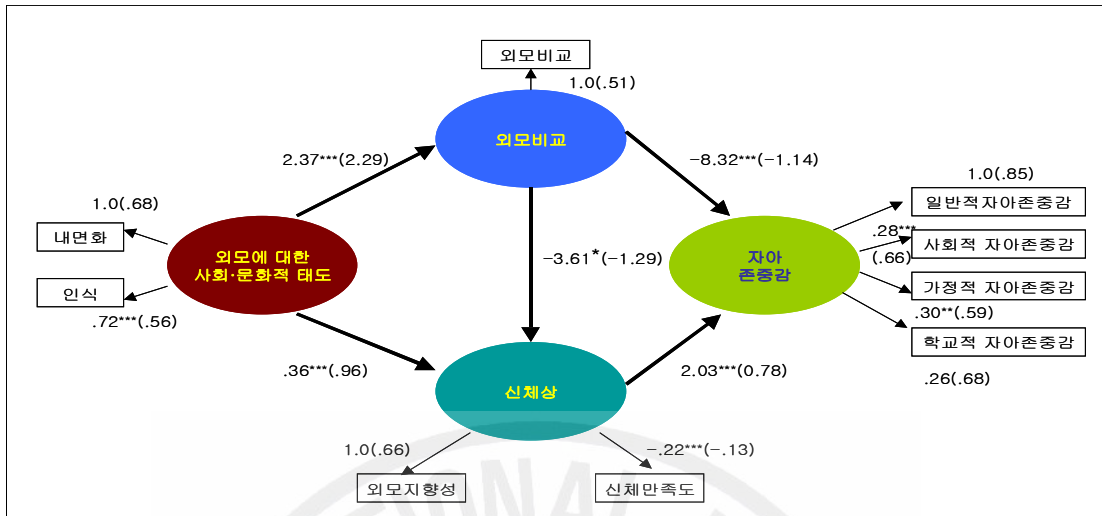
2)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검증

(1)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χ^2 의 값은 유의도를 고려할 때 비교적 좋지 않은 값을 나타내었다. χ^2 의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간명한 모형을 표본수가 큰 자료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다른 적합도 지수인 GFI, AGFI, NFI를 함께 고려한 결과 이들의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다(홍세희, 2000). 본 모형의 값은 모두 0.90 이상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RMR이 0.03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고, 이 값이 .05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수정된 모형의 특징수(parameter)



$\chi^2 = 43.26 (p < .00, df = 17) GFI = .99 AGFI = .97 NFI = .98, RMR = 0.03$

*p<.05, **p<.01, ***p<.001

[그림 IV-2] 수정된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특징수(parameter)들의 추정치 결과들을 검토해 보면, 경로계수들(γ, β)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간의 관계(λ)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각 측정변수들이 구성개념을 적합하게 측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실증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하고, 가설검증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수정된 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IV-2] 와 같고, 가설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추정치를 <표 IV-2>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추정치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IV-2> 수정된 모형에 대한 추정치

특징수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t
λ_{x11} (내면화)	1.00	0.68	-	-
λ_{x21} (인 식)	0.72	0.56	0.06	11.47***
λ_{y23} (외모지향성)	1.00	0.66	-	-
λ_{y33} (신체만족도)	-0.22	-0.13	0.08	-2.87**
λ_{y12} (외모비교)	1.00	0.51	-	-
λ_{z11} (일반적 자아존중감)	1.00	0.85	-	-
λ_{z21} (사회적 자아존중감)	0.28	0.66	0.02	16.23***
λ_{z31} (가정적자아존중감)	0.30	0.59	0.02	16.77***
λ_{z41} (학교적 자아존중감)	0.26	0.68	0.01	19.02***
γ_{21} (사회문화태도→외모비교)	2.37	2.29	0.66	3.57***
γ_{31} (사회문화태도→신체상)	0.36	0.96	0.03	11.67***
β_{13} (외모비교→자아존중감)	-8.32	-1.14	1.41	-5.92***
β_{12} (신체상→자아존중감)	2.03	0.78	0.50	4.07***
β_{22} (외모비교→신체상)	-3.61	-1.29	1.75	-2.06*

R^2 of Constructs $\eta_1 = .30$ $\eta_2 = .92$ $\eta_3 = 0.75$

*p<.05, **p<.01, ***p<.001

주. 각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측정변수의 추정치는 1로 고정된 값이다.

<표IV-2>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비교에 직접적인 효과($\gamma_{21}=2.29$, $t=3.57$)를 나타냈으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직접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상에 정적인 직접효과($\gamma_{31}=.96$, $t=11.67$)가 나타났는데 신체상 측정변수인 외모지향성에는 정적인 직접영향을 나타내었고 신체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신체에 대한 의식과 관심, 외모의 중요성,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신체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명(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내면화함에 따라 신체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겪고, 신체만족도는 떨어지게 되지만 자신의 신체의 중요성과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되어 자신의 몸을 매력적으로 보

이게 하기 위해 가꾸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진효정(2002)의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20대 여성들을 보면 선천적인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어 후천적인 외모에 더 중점을 두어 외모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외모비교로의 인과계수($\gamma_{21}=2.29$)가 신체상으로의 인과계수($\gamma_{31}=0.96$)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아서 가설 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외모비교는 신체상과의 관계가 부적인 직접효과($\beta_{22}=-1.29$, $t=-2.06$)를 주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상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효과($2.29 \times -1.29 = -2.95$)가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모의 이상화된 사회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일 때 외모비교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외모비교는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직접효과($\beta_{13}=-1.14$, $t=-5.92$)를 나타내고 있어서, 외모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외모를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외모가 정상적인 범주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서정희 외(2004)의 연구결과에서 외모와 능력에 만족할수록 외모와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beta_{12}=0.78$, $t=4.07$)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긍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부정적인 신체상은 열등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Marlene과 Kelly(2004) 연구와 일치되고 있다(김혜경외 4인, 2004. 재인용).

특히 신체상과 외모비교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할 때, 외모비교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3. 수정된 모형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V-3>수정된 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특징수	추정치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t
β_{13} (외모비교→자아존중감)	-8.32	-1.14	1.41	-5.92***
β_{12} (신체상→ 자아존중감)	2.03	0.78	0.50	4.07***
β_{22} (외모비교→신체상)	-3.61	-1.29	1.75	-2.06*

R^2 of Constructs $\eta_1 = .30$ $\eta_2 = .92$ $\eta_3 = 0.75$

*p<.05, **p<.01, ***p<.001

<표IV-3>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연결하는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매개효과의 경로는 세 개의 경로가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간 경로계수와 그에 따른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성 있어야 한다(강지연·유선경, 2006).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내에서 매개하는 경로는 경로계수가 유의성 있고, 매개하는 t값이 외모비교에서 신체상으로 가는 경로(β_{22})는 t값(-2.06)이며 외모비교에서 자아존중감 경로(β_{13})에서 t값(-5.92)으로 신체상에서 자아존중감 경로(β_{12})의 t값(4.07)에서 모두 유의성 있었다. 이는 외모비교와 신체상이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모비교는 외모비교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신체상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 -4> 자아존중감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직·간접 효과

예측변인	자아존중감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간접 효과 경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태도	.	-0.73 (-0.27) ^a	-0.73 (-0.27) ^a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외모비교→자아존중감 : -3.00(-1.09)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신체상→자아존중감: 4.81(1.78)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외모비교→신체상→자아존중감: -2.54(-0.96)
외모비교	-8.32 (-1.14) ^a	-7.34 (-1.00) ^a	-15.66 (-2.14) ^a	1. 외모비교→신체상→자아존중감
신체상	2.03 (.78) ^a	.	2.03 (.78) ^a	

^a. 괄호안의 값은 표준화 값을 의미 *p<.05, **p<.01, ***p<.001

<표IV-4>에 제시된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는 없고, 최종 내생변수로 가는 세 개의 경로를 통해서 간접효과(-0.27)만 주고 있다.

외모비교는 직·간접 효과를 모두 나타내고 있으나, 신체상은 직접효과(0.78)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중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외모비교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신체상을 통한 간접효과에 의해 가장 큰 부적인 효과(-2.14)를 주고 있다.

<표IV-5> 자아존중감 측정변수들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

예측변인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0.73 (-0.23) ^a	-0.20 (-0.18) ^a	-0.22 (-0.16) ^a	-0.19 (-0.18) ^a
외모비교	-15.66 (-1.83) ^a	-4.30 (-1.40) ^a	-4.75 (-1.26) ^a	-4.06 (-1.45) ^a
신체상	2.03 (.66) ^a	.56 (.51) ^a	.62 (.46) ^a	.53 (.53) ^a

^a. 괄호안의 값은 표준화 값을 의미 $|t| > 1.965 \quad \alpha=0.05$

<표IV-5>의 각 예측변수들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 효과를 보면, 외모비교 (-5.94)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체상(2.16)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는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되고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외모비교를 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모비교가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인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긍정적이고, 매력적이며, 균형 잡힌 몸매라고 생각하고 외모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외모관리에 적극적일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체상 또한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학교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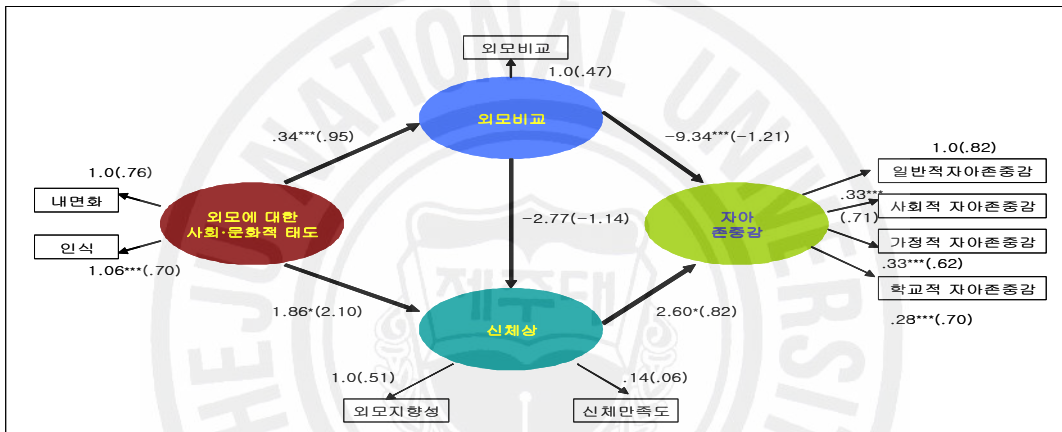
외모비교를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상적 기준으로 보는 외모를 가진 또래와의 외모비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신체상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한 서경현·이재구(2003), 이계원(1994), 이금룡(1998), 이미령(1996), 정승교(1993)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고,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한 연구결과(박향순, 1998; 박경애, 2002)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선희(2003)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대중매체 의존요인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신체상 변수인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만족을 뜻하는 것으로, 대중매체에 노출될수록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신체상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열망이 커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체상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4 수정된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연구가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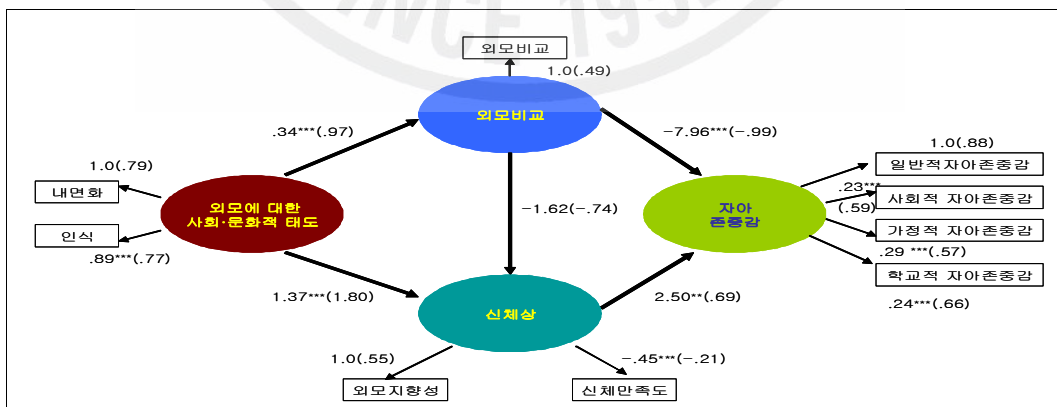
초, 중,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그림Ⅳ-3] 과 [그림Ⅳ-4] 에 제시하였다. 또한 특징수 추정 결과는 <표Ⅳ-6>과 같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가설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chi^2 = 50.77 (p < .00, df = 17) GFI = .98 AGFI = .94 NFI = .95$

*p<.05, **p<.01, ***p<.001

[그림Ⅳ-3] 수정된 모형에서 남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



$\chi^2 = 69.85 (p < .00, df = 17) GFI = .97 AGFI = .91 NFI = .94$

*p<.05, **p<.01, ***p<.001

[그림Ⅳ-4] 수정된 모형에서 여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 [그림Ⅳ-3] 과 [그림Ⅳ-4] 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에 이르는 경로 (β_{22})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추정치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외모비교에서 신체상으로의 경로계수(β_{22})를 제외한 추정치들이 모두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Ⅳ-6> 성별에 따른 모형의 추정치

특징수	남학생(n=468)				여학생(n=456)			
	추정치	SS ^{a)}	표준오차	t	추정치	SS ^{a)}	표준오차	t
λ_{x11} (내면화)	1.00	0.76	-	-	1.00	0.79	-	-
λ_{x21} (인식)	1.06	0.70	0.10	10.59***	0.89	0.77	0.07	12.08***
λ_{y23} (외모지향성)	1.00	0.51	-	-	1.00	0.55	-	-
λ_{y33} (신체만족도)	0.14	0.06	0.13	1.13	-0.45	-0.21	0.12	-3.79***
λ_{y12} (외모비교)	1.00	0.47	-	-	1.00	0.49	-	-
λ_{z11} (일반적자아존중감)	1.00	0.82	-	-	1.00	0.88	-	-
λ_{z21} (사회적자아존중감)	0.33	0.71	0.03	12.28***	0.23	0.59	0.02	10.90***
λ_{z31} (가정적자아존중감)	0.33	0.62	0.03	12.65***	0.29	0.57	0.03	11.17***
λ_{z41} (학교적자아존중감)	0.28	0.70	0.02	13.96***	0.24	0.66	0.02	12.72***
γ_{21} (사회문화적태도-외모비교)	0.34	0.95	0.04	8.18***	0.34	0.97	0.04	9.07***
γ_{31} (사회문화적태도-신체상)	1.86	2.10	0.74	2.49*	1.37	1.80	0.39	3.49***
β_{13} (외모비교-자아존중감)	-9.34	-1.21	2.71	-3.45***	-7.96	-0.99	2.07	-3.85***
β_{12} (신체상-자아존중감)	2.60	0.82	1.07	2.43*	2.50	0.69	0.93	2.69**
β_{22} (외모비교-신체상)	-2.77	-1.14	2.12	-1.31	-1.62	-0.74	1.08	-1.50

a) SS: 표준화된 추정치 *p<.05, **p<.01, ***p<.001

주. 각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측정변수는 1로 고정된 값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Ⅳ-6>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에 미치는 직접경로(γ_{21})를 비교해 볼 때, 표준화

된 추정치 값이 남학생($\gamma_{21}=.95$)이 여학생($\gamma_{21}=.97$)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매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태도의 점수가 여학생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외모의 중요성과 사회문화적 기준을 더 내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모비교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직접경로(β_{13})에서는 표준화된 추정치 값이 남학생($\beta_{13}=-1.21$)이 여학생($\beta_{13}=-0.99$)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남학생에서 외모비교가 자아존중감에 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신체상으로 가는 경로(γ_{31})에서도 남학생($\gamma_{31}=2.10$)과 여학생($\gamma_{31}=1.80$)을 비교했을 때 남학생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상 측정변수인 신체만족도는 여학생은 부적인 영향($\lambda_{y33}=-.21$)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학생은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학생의 신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남학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에게 있어서 외모비교가 자아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미희(1999)의 연구에서 보면 남학생들의 객관적인 신체구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은 자신의 외모인 키, 몸무게, 몸매를 또래들과 비교해서 정상적인 범주에 들지 않을 때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여학생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모도 하나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상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직접경로(β_{12})에서도 남학생($\beta_{12}=0.82$)과 여학생($\beta_{12}=0.69$)을 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도 남학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은 신체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한 최종 내생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측정변수들과의 관계를 보면, 모형을 구성하는 예측 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서도 여학생은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경로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가설 4도 지지되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경로, 영향력 및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직·간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 모형에서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74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92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첫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측정도구로 Heinberg와 동료들(1995)이 개발하고, Smolak, Levine과 Thompson(2001)이 중학생 대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한 것이다. 이것을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하고, 조영미(2005)가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둘째, 외모비교는 Thompson

et. al.(1999)이 개발한 신체비교척도(The Body Comparison Scale)를 조영미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신체상도구는 Cash(1990)의 신체자아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적 신체상을 평가하는 척도(Multidimensional Body -Self Relation Questionnaires; MBSRQ)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 조선명(1999)이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Inventory)로 황찬구(1988)가 번안하여 재구성한 도구이다.

본 연구의 절차는 문헌고찰을 통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남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92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로부터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가정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모형을 확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 6.0과 SPSS 12.0K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측정변수인 내면화는 외모비교와 신체상 측정변수인 외모지향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일반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내면화될수록 외모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신체상은 불만족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대인관계적인 측면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측정변수인 인식은 자아존중감(일반적, 가정적, 학교적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외모비교와 신체상 측정변수인 외모지향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외모비교는 신체상 측정변수인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외모비교를 많이 할수록 신체상은 불만족하게 되고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신체상 측정변수인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로 자신의 신체상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반면 신체상 측정변수인 외모지향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수정된 모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해석한 결과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와 신체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에는 간접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접경로를 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비교와 신체상을 통해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외모비교를 통해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신체상을 통해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비교($\gamma_{21}=2.29$)와 신체상($\gamma_{31}=0.96$)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면 외모비교에 더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외모비교는 직·간접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신체상에 부적인 간접효과($\beta_{22}=-1.29$)를 통해서 나타내는 영향과 부적인 직접효과($\beta_{13}=-1.14$)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체상 또한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외모비교가 신체상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직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외모비교,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 신체상,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상,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

가 모두 유의성 있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외모비교와 신체상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집단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에서 남녀 모두 외모비교에서 신체상으로 가는 경로(β_{22})는 유의성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는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외모비교에 이르는 경로(γ_{21})에서만 여학생 ($\gamma_{21}=0.97, p<.001$)이 남학생($\gamma_{21}=0.95, p<.001$)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체상(β_{12})과 외모비교(β_{13})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성 있는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남학생이 자아존중감에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상화된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된 상태에서 외모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잘못된 인식과 불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체상은 자아존중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서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신체상의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기능이나 장점들을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상에 대한 정립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을 올바르게 수용하게 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당당하게 되고, 자아존중감도 높아질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외모비교가 신체상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화된 외모를 가치기준으로 내면화된 상태에서 또래들과의 외모비교는 상향비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자신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특히 외모에 해당되는 키, 몸무게, 몸매는 시각적이어서 비교와 평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모방심리가 강하며 대인 관계를 의식하게 되면서 외모에 대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가 정상적 범주에 포함되지 못할 때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외모도 하나의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경현·이재구(2003)의 연구에서는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의 결정적인 예언변인이며, 이미령(1996)의 연구에서도 외모스트레스가 여고생의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와 또래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와 신체상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하고 있다.

김재숙·이미숙(2001), 조근영(1997)의 연구를 보면 대중매체에 노출될수록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신체상 불만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영향은 청소년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보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성별을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외모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기준을 민감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신체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에 만연되어지고 있는 얼짱, 몸짱에 대한 역기능을 알리고, 외모지상주의나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가치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전반적인 의식전환과 자신의 외모와 신체상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신체상이나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를 주로 연구하는데 그치고 있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

교, 신체상과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힌 결과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제언

결론을 토대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비교에서 신체상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경로에 대한 검증을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은 외모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할 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앞으로의 사회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방 심리가 강한 청소년기에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상 측정방법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개인이 지각하는 평가가 객관적인 실체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병행하여 다양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하기 전에 해당 변인들에 대한 잠재변인을 선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지 않아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구조를 검증한 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소영(2003). **외모комплек스와 신체상**.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
- 강정주(2001). **신체상에 대한 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지연·유성경(2006). 슈퍼바이지 수치심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관계에서 작업동맹 및 자기개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Vol. 7, No. 4, 1005-1021.
- 곽경난·김도연(2003). 중학생의 신체상에 대한 인체측정학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 42권, 제 4호, pp. 741-747.
- 권기덕(1999). 신체상에 관한 연구(Ⅱ).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 3호, pp. 100-123.
- 구미희(1999). **청소년기 신체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경연(1985). 아버지의 자경심 수준, 아동 개인적 변인 및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자경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pp. 143-150.
- 김경혜 외4인(2004). 여대생의 체중조절 경험과비만도, 신체상 스트레스대처에 관한 연구. **김천과학논문집**, 제30집, pp63-76.
- 김경희(1989).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대연(2001). **신체상에 대한 만족과 신체부위 평가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김문혜(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선희(2003). 신체이미지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53권, 제 1호, pp 87-98.

- 김성이(1990). 청소년 의식변화에 따른 미래상. **선도창간호**, 서울: 검찰소년선도위원회.
- 김수천(1973). 자아개념,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 **춘천교대논문집**, 14, 32-52.
- 김양진·강혜원(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4, 2, pp. 197-209.
- 김윤희 외 3인(1985).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 정신건강비교분석. **대한간호** 25(1):79.
- 김재숙·이미숙(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제 25집, 5호, PP. 957-968.
- 김혜숙(2006). 학생들의 신체상에 대한 인지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남상인(200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논총**, 제 12호, pp. 77-91.
- 류재영(1991). 자기점검 훈련이 학업성취능력 및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교육대학원.
- 문정신(2003). 공적 자기의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와 신체상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경미(2003). 아동의 비만 및 신체상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아청(1998). **자기의 탐색**. 서울: 교육과학사.
- 박정환 외 2인 (2005). **내가 하는 통계분석 SPSS**. 서울: 학지사.
- 박종선(1997). 여중생의 체중조절 실태, 비만도 및 신체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학회지**, 14(2).
- 박항순(1998). **비만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배진주(2005). **중학생의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진희(1999).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보기·강석기(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9권, 제 3호, pp. 269-291.
- 서경현·이재구(2003). 초·중·고·대학생들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탐색. **발육발달학회지**, 제11집, 제2호, pp. 77-88.
- 서정희·백재화·김효철(2004). 청소년 소비자의 외모와 능력에 대한 만족과 평가 및 자아존중.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제 5권, 2호, pp. 53-68.
- 송경자·김재숙(1999). 신체이미지·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 연구**, 제 7권, 제 5호, pp. 68-79.
- _____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복식문화 연구**, 29집, 3/4호, pp. 391-402.
- 송금주·조정환(2002). 신체상(body image) 검사지의 구인 타당화 연구. **한국체육 측정평가학회지**, 제 4권, 1호, pp. 31-46.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안재현(1996). **혈액투석 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계민(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양수진·최영·이형영(2001). 도시 여고생들의 식이 태도와 자아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신경정신학회**, 제 40권, 제 3호.
- 양승공(2003). **초등학생들의 신체상에 대한 만족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엄현신(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경님(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문집**, 제 12호, pp. 43-54
- 이가영(1997). **신세대 의복 행동에 나타난 TV의 영향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계원(1994). 청소년기의 신체만족도가 불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금룡(1998). 외모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1호, pp. 1-18.
- 이동원·박옥희(2004).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미령(1996).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예비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숙·유지숙·최영(2000). 청소년의 신체증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9권, 2호.
- 이상로·이관용(1981). **성격이론**.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상선·오경자(2004). 몸매와 체중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신체 불만족이 여대생의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 23집 1호, pp. 91~106.
- 이수정(2004). **여대생의 대인불안, 자기효능감 및 신체상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영자(2003).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이재창·임용자(1994). 사춘기 청소년의 이미지 연구의 생물사회적 접근모형. **홍익대학교 인문과학**, 2권, 1호, pp. 173-200.
- 이춘재·오가실·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 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89-102.
- 이춘재·곽금주(1994). 자기상(self-image)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임숙자 외 3역(2000). Cash & Pruzinsky 저. **바디이미지**. 서울: 교문사.
- 임철진(2002).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장희순(2004). **대중매체가 신체상의 지각과 상대 신체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경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 신체상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전미향(1998). 집단미술치료가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Vol. 5, No. 1.
- 정승교(1998). 여중생의 체형지각에 따른 체중조절실태,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 **세명논총**, 제 7집.
- 정옥분·윤종희·도현심(1999). **청년발달의 이론**. 서울: 양서원
-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은순(2001). 여자대학생의 비만지수와 신체상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 7, No. 4, pp. 622~630.
- 정추자(1985). 지지적 집단간호가 하지골절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5(3). 74~80.
- 조선명(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근영(1997). **광고 모델의 신체적 매력의 수용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조영미(2005). **아동 및 청소년기의 신체상**.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조정문(198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조지숙(1992). **청소년의 신체상·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진효정(2002).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최진아·이숙(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관련변인. **가정과학연구소**, 제 6집
- 최혜림(199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증, 가정적 자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 11집, 2호, pp. 183~197.
- 한규석(2006).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상철(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한혜원(2003). 여대생의 신체상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유산소운동과학학회지**, 제7권, 제 1호, pp. 61~72.

- 허혜경·김혜수(2003). **청소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현상명(2005). **중학생의 비만정도에 따른 신체상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금희(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권, 2호 pp. 348-357.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 19. No. 1, pp. 161-177.
-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Vol. 22, No. 3, pp. 293-302.
- 황찬구(1988). **아동구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Cash, T. F., & Pruzinsky, T.,(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pp. 51-79). NY: Guilford Press.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Abstract>

**Influence of Self-Esteem on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Image of
Adolesc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Hyeon, Jeong-Sook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study¹⁾ aims at figuring out the adolescents'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image and self-esteem, its channel and influence.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problems to be studied on were set up.

First, how are the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image related to the self-esteem?

Second, what channel will the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image influence on the self-esteem through?

Third, do the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image have th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nd self-esteem?

Fourth, is there any apparent difference of influence according to gender in the relation model between the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body image and the self-esteem?

For the object of the study, 974 students, who were in their adolescent ages while being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2nd grade in middle school, and 2nd grade in high school respectively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selected:

1)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The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for the selected students, and 974 set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data of analysis.

The device in the test was used to measure the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body image, and self-esteem.

First, the device used in the study was modified by Smolak Levine and Thompson(2001),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Kyeong-Ja, Oh(2003). Also, it was re-modified appropriately for the selected students by Yeong-Mi, Cho.

Second, 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Comparison Scale was used for the appearance comparison: It was originally developed by Thompson et. al.(1999), and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Yeong-Mi, Cho.

Third, Multidimensional Body -Self Relations Questionnaires(MBSRQ) by Cash(1990) which is the device of self-reporting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body image: it was used by Sun-Myeong, Cho(1999) in advance.

Fourth, the Self-Esteem Inventory by Coopersmith(1967) which is a device to measure the self-esteem of kids was used to measure the self-esteem: It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its contents have been re-organized by Chan-Ku, Hwang(1988).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program of AMOS 6.0 and SPSS 12.0K Windows. Also,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lations in between variables, Pearson correlation test was performed. With regard to the model tes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conducted.

As follow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s the adolescents have a tendency to compare their own appearances with the social-cultural criterion that has been idealized by the media, they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own body images in general.

In particular, as the body image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titute the self-esteem, the higher the self-esteem was indicated, the more satisfied the adolescents were with their body images. Accordingly, the education for the body image is required lest the adolescents should accept their own body images while not distorting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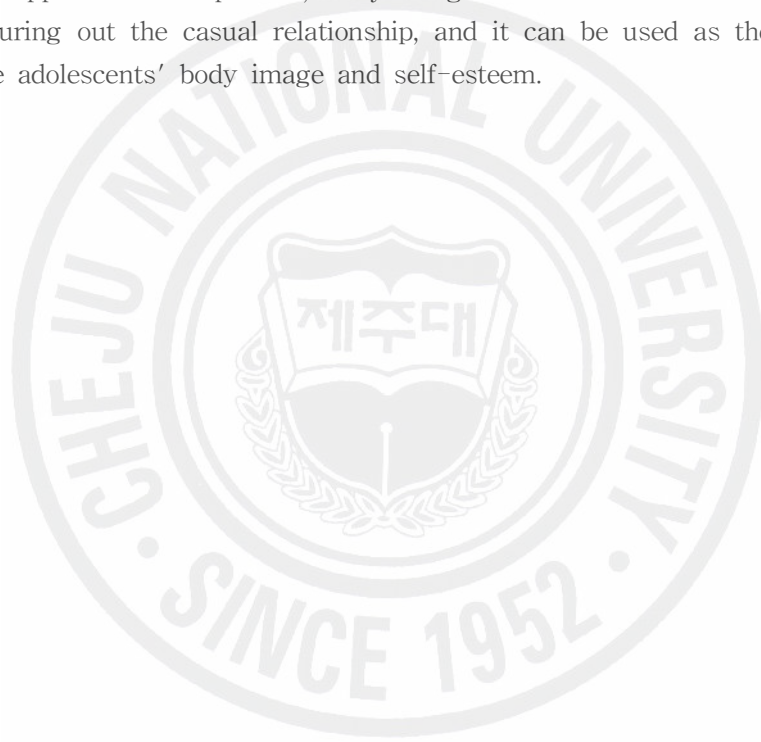
Second, it was indicated that the adolescents' appearance comparison rather than the body image had the more influence on their self-esteem: It is because the adolescents have become sensitive to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appearances as they have become psychologically unstable and strongly wanted to mimic while being conscious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ird, it was indicated that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ent up down through

the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and body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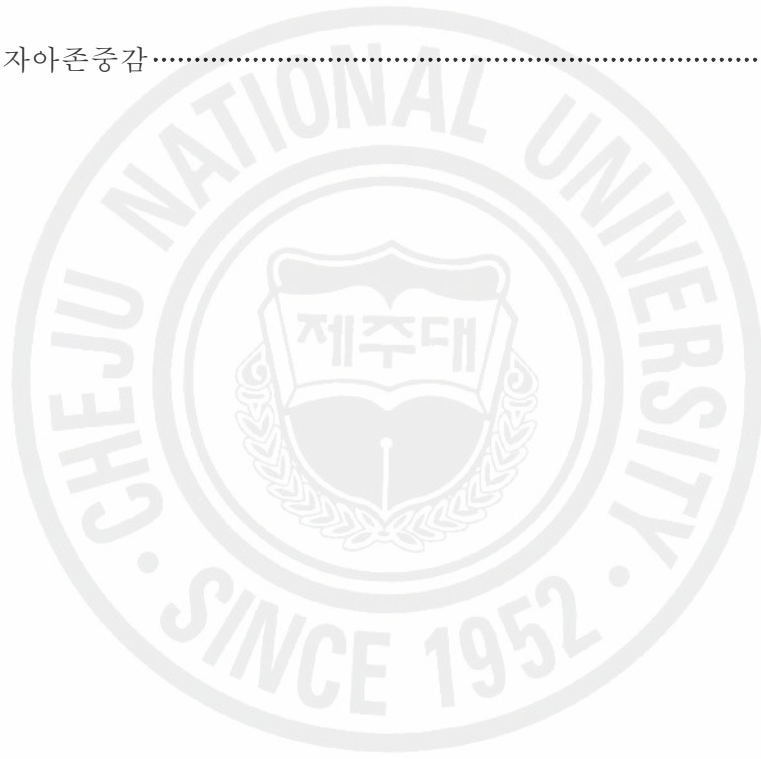
Fourth,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son by gender, the female students'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was indicated as higher than the one of male students. Accordingly, the female student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own body images because they have the higher social criterion for the importance of appearance than male stude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lookism spread widely in society or the criterion of value which considers being too thin as the ideal outlook.

The preceding studies merely focused mainly on the influence or relation of body image or body satisfaction on the self-esteem, accordingly deficient have been the studies to figure out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cultural attitude for appearance, appearance comparison, body image and the self-esteem. So this study aims at figuring out the casual relationship, and it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enhance the adolescents' body image and self-esteem.



부 록 목 차

<부록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60
<부록 2> 신체상.....	61
<부록 3> 외모비교.....	63
<부록 4> 자아존중감.....	64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제주도내 청소년 여러분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설문지로 청소년의 신체상에 대한 연구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들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현정숙

여학생 설문지

<부록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다음의 질문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문항을 선택하여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2. 옷은 날씬한 모델이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	1	2	3	4	5
3. 날씬한 여자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고 싶다.	1	2	3	4	5
5.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날씬한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1	2	3	4	5
7.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8.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1	2	3	4	5
9.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할수록 옷맵시가 난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12. 수영복 모델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1	2	3	4	5

<부록 2> 신체상

▶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1	2	3	4	5
2.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찌까 봐 걱정한다.	1	2	3	4	5
4.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1	2	3	4	5
5.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 본다.	1	2	3	4	5
6.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1	2	3	4	5
7.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8.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1	2	3	4	5
9. 나는 언제나 멋져 보여야 한다.	1	2	3	4	5
10. 나는 외모 치장에 쓰는 용품이 별로 없다.	1	2	3	4	5
11.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내 몸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2. 나는 내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13.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내 머리 모양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있다.	1	2	3	4	5
16.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7.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한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 령 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령 다	매우 그 령 다
1. 얼굴(얼굴 생김새, 눈, 코, 입의 조화)	1	2	3	4	5
2. 머리(머리색, 머릿결)	1	2	3	4	5
3. 피부	1	2	3	4	5
4. 상체 (가슴, 어깨, 팔)	1	2	3	4	5
5. 하체(엉덩이, 허벅지, 다리)	1	2	3	4	5
6. 허리, 배	1	2	3	4	5
7. 몸무게	1	2	3	4	5
8. 키	1	2	3	4	5
9. 전체적 외모	1	2	3	4	5

<부록 3> 외모비교

▶ 자신의 신체 부분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문항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아주 가끔	가끔	자주	항상
1. 나는 친구와 키를 비교한다.	1	2	3	4	5
2. 나는 친구와 체격(몸매)을 비교한다.	1	2	3	4	5
3. 나는 친구와 몸무게를 비교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와 학년을 적어 주시고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_____ 학교 _____ 학년
2. 성별 : 여()
3. 현재의 자신의 신장과 체중 : 신장(cm) 체중(kg)
4. 현재 나의 건강 상태는?
 ①매우 나쁘다.()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 좋다.()
5.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나의 체중은?
 ①저 체중() ②정상 체중() ③과 체중() ④비만()
 ⑤과도한 비만()

<부록 4> 자아존중감

▶ 다음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나는 공상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다.	1	2	3	4	5
4. 나는 좀 더 내가 어렸으면 한다.	1	2	3	4	5
5.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1	2	3	4	5
6.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	2	3	4	5
7. 누군가가 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어야만 한다.	1	2	3	4	5
8. 나는 새로운 것을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할 때가 있다.	1	2	3	4	5
10. 나는 아주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11.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상당히 행복하다.	1	2	3	4	5
13.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다.	1	2	3	4	5
14. 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1	2	3	4	5
15. 내 생활의 만사가 어수선하다.	1	2	3	4	5
16.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여자인 것이 정말 싫다.	1	2	3	4	5

설 문 내 용	전혀 그 령 지 않 다	별 로 그 령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령 편 이 다	매 우 그 령 편 이 다
18. 나는 나 자신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부끄럽다.	1	2	3	4	5
20. 나는 다른 사람만큼 잘 생기지 않았다.	1	2	3	4	5
21.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그것을 말한다.	1	2	3	4	5
22.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나는 실패자이다.	1	2	3	4	5
24. 나는 꾸중을 들으면 금방 화가 난다.	1	2	3	4	5
25. 나를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26.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	2	3	4	5
27.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
28.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1	2	3	4	5
29.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30. 나는 오히려 나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31.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1	2	3	4	5
32.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33. 아이들이 나를 흥분다.	1	2	3	4	5
34.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1	2	3	4	5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36. 나는 집에서 화를 잘 낸다.	1	2	3	4	5
37. 나의 부모님은 내 기분을 맞춰 주신다.	1	2	3	4	5
38.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	2	3	4	5
39.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1	2	3	4	5
40. 나는 가출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된다.	1	2	3	4	5
41.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42. 나의 부모님은 나를 몰아세우는 것 같다.	1	2	3	4	5
43. 나는 많은 친구나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44. 나는 학교 공부를 자랑으로 내세운다.	1	2	3	4	5
45.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1	2	3	4	5
46. 나는 반에서 지명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47.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치 못하다.	1	2	3	4	5
48. 나는 학교에서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5
49. 나의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50.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있다.	1	2	3	4	5

남학생 설문지

<부록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 다음의 질문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문항을 선택하여 √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TV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의 외모를 내 이상형으로 생각 하고 있다.	1	2	3	4	5
2. 옷은 근육이 발달한 모델이 입어야 더 멋있어 보인다.	1	2	3	4	5
3. 근육이 발달한 남자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고 싶다.	1	2	3	4	5
5. 우리사회에서 뚱뚱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근육의 발달한 남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1	2	3	4	5
7.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8.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1	2	3	4	5
9.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씬할수록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이 발달할수록 더 보기가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멋지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12. 운동선수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1	2	3	4	5

<부록 2> 신체상

▶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이나 행동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언제나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1	2	3	4	5
2. 내 몸은 섹시한 매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언제나 살찐 것에 대해 또는 살이 찌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4.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좋다.	1	2	3	4	5
5.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 본다.	1	2	3	4	5
6.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1	2	3	4	5
7.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8.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1	2	3	4	5
9. 나는 언제나 멋져보여야 한다.	1	2	3	4	5
10. 나는 외모 치장에 쓰는 용품이 별로 없다.	1	2	3	4	5
11. 나는 옷을 입지 않은 내 몸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12. 나는 내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13. 남들이 내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나는 내 머리 모양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1	2	3	4	5
15.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있다.	1	2	3	4	5
16.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7. 나는 내 외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지 한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 령 지 않다	그 령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령 다	매우 그 령 다
1. 얼굴(얼굴생김새, 눈, 코, 입의 조화)	1	2	3	4	5
2. 머리(머리색, 머릿결)	1	2	3	4	5
3. 피부	1	2	3	4	5
4. 상체 (가슴, 어깨, 팔)	1	2	3	4	5
5. 하체(엉덩이, 허벅지, 다리)	1	2	3	4	5
6. 허리, 배	1	2	3	4	5
7. 몸무게	1	2	3	4	5
8. 키	1	2	3	4	5
9. 전체적 외모	1	2	3	4	5

<부록 3> 외모비교

▶ 자신의 신체 부분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자신과 가까운 문항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아주 가끔	가끔	자주	항상
1. 나는 친구와 키를 비교한다.	1	2	3	4	5
2. 나는 친구와 체격(몸매)을 비교한다.	1	2	3	4	5
3. 나는 친구와 몸무게를 비교한다.	1	2	3	4	5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와 학년을 적어 주시고 해당란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_____ 학교 _____ 학년
2. 성별 : 여()
3. 현재의 자신의 신장과 체중 : 신장(cm) 체중(kg)
4. 현재 나의 건강 상태는?
 ①매우 나쁘다.() ②나쁘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 좋다.()
5.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나의 체중은?
 ①저 체중() ②정상 체중() ③과 체중() ④비만()
 ⑤과도한 비만()

<부록 4> 자아존중감

▶ 다음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 문 내 용	전혀 그 령 지 않 다	별 로 그 령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런 편 이 다
1. 나는 공상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때가 있다.	1		3	4	5
4. 나는 좀 더 내가 어렸으면 한다.	1	2	3	4	5
5.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는 고쳐야 할 점들이 많다.	1	2	3	4	5
6.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1	2	3	4	5
7. 누군가가 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어야만 한다.	1	2	3	4	5
8. 나는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할 때가 있다.	1	2	3	4	5
10. 나는 아주 쉽게 포기한다.	1	2	3	4	5
11.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상당히 행복하다.	1	2	3	4	5
13.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다.	1	2	3	4	5
14. 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1	2	3	4	5
15. 내 생활의 만사가 어수선 하다.	1	2	3	4	5
16.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남자인 것이 정말 싫다.	1	2	3	4	5

설 문 내 용	전혀 그 령 지 않 다	별 로 그 령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령 편 이 다	매 우 그 령 편 이 다
18. 나는 나 자신을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부끄럽다.	1	2	3	4	5
20. 나는 다른 사람만큼 잘 생기지 않았다.	1	2	3	4	5
21.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그것을 말한다.	1	2	3	4	5
22.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나는 실패자이다.	1	2	3	4	5
24. 나는 꾸중을 들으면 금방 화가 난다.	1	2	3	4	5
25. 나를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26.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	2	3	4	5
27.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	2	3	4	5
28.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다.	1	2	3	4	5
29.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1	2	3	4	5
30. 나는 오히려 나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31. 친구들은 주로 내 생각에 따른다.	1	2	3	4	5
32.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33. 아이들이 나를 흥본다.	1	2	3	4	5
34.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진다.	1	2	3	4	5

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36. 나는 집에서 화를 잘 낸다.	1	2	3	4	5
37. 나의 부모님은 내 기분을 맞춰 주신다.	1	2	3	4	5
38.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	1	2	3	4	5
39.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1	2	3	4	5
40. 나는 가출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된다.	1	2	3	4	5
41.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42. 나의 부모님은 나를 몰아세우는 것 같다.	1	2	3	4	5
43. 나는 많은 친구나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다.	1	2	3	4	5
44. 나는 학교 공부를 자랑으로 내세운다.	1	2	3	4	5
45.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1	2	3	4	5
46. 나는 반에서 지명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1	2	3	4	5
47.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생활이 원만치 못하다.	1	2	3	4	5
48. 나는 학교에서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5
49. 나의 선생님은 나를 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50.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있다.	1	2	3	4	5